가상자산업권
보안 대책회의

모 두 말 씀

2026. 11. 12. (목) 16:30

금융위원회 부위원장
신 진 창

※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Ⅰ. 인사 말씀

안녕하십니까.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신진창입니다.

최근 계속되는 가상자산업권 **해킹**과 **정보유출 사고**에 따른
엄중한 경계감과 **위기의식**을 가지고
가상자산업계와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과 모이게 되었습니다.

오늘은 그간 **침해사고 현황**과 그에 대한 **인식**을 점검하면서,
현 상황에서 **최고 수준의 보안**을 위한 사업자의 조치
그리고 이용자의 **신뢰 회복**을 위해 나아가야할
가상자산업권 **보안 정책** 방향에 대해 **논의**해보고자 합니다.

Ⅱ. 최근 가상자산업권 침해사고 현황

최근 가상자산업권에서 잦은 **침해사고**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개인정보 유출, 이용자 자산 탈취 등의 사고는
산업의 **신뢰 기반**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.

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**바이낸스**에서 발생한
63억불(약 8조원) **규모**의 가상자산 탈취사고는
우리의 **경각심**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.

그간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**급격한 성장**을 거듭해왔습니다.
현재 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**시가 총액**은 **약 66조원**에 달하며,
이용자 수는 **1,000만명**이 넘는 **자산시장**으로 자리잡았습니다.

* '26.11.5일 기준 국내 거래소 가상자산 시가총액 66.0조원, 일 거래체결금액 1.9조원, 거래 가능 이용자 수(중복 포함) 1,002.2만개

하지만, **시장의 성장**과 업계에 대한 **기대**와 달리
일부 사업자들의 **보안**에 대한 **인식**은
아직도 **제도화 이전**에 머물러 있습니다.

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자산을
수탁하여 **보관**하고 **관리**한다는 점에서
전통적인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체계를
갖출 필요가 있습니다.

사고가 발생한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자는
가상자산업계 **전체**의 **신뢰**에 의문을 던지는
이용자들의 **비판**을 **뼈아프게** 받아들여야 합니다.

Ⅲ. 가상자산업권 보안 정책 방향 및 조치 필요사항

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**제도권 편입**을 추진한 이래
가상자산사업자가 그에 **걸맞은 보안 수준**을 갖추도록
지속적으로 **보안규율**을 **강화**하여 왔습니다.

이제, 가상자산사업자가 일반 **금융회사**와
완전히 **동일한 수준**의 **보안 규율체계**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
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.

* 가상자산사업자는 일반적인 금융회사와 달리 「전자금융거래법」상 보안규율 미적용

이에 정부는 디지털자산업자가 **금융회사**에 **준**하는
IT 안전성 확보의무와 **배상책임**을 갖추도록 하는
완전한 규율체계를 위한 **입법**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

하지만 최근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
가상자산업계의 **최고 수준**의 **보안 강화**는
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는, 한시도 **미룰 수 없는 문제**입니다.

그러므로 사업자 여러분께서는
이용자 보호와 **보안**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
전사적(全社的) **역량**을 **결집**하여,

① 금융회사 수준의 **안전성**과 **대응 프로세스**를 완비하고,

② 24시간 **상시 모니터링** 및 **보고체계**를 갖추며,

③ **콜드월렛 비중**을 상향하고 **충분한 준비금**을 확충하는 등

현 단계에서 가용한 **모든 수단**과 **조치**를 동원하여야 합니다.

금융당국도 **업계의 쇄신 노력**을 **빈틈없이 지원**하는 한편,
관련 **제도**를 **지속 정비**해 나가겠습니다.

Ⅳ. 마무리 말씀

위기(危機)라는 단어에서
어떤 이는 **위험**(危險)만을 보고, 어떤 이는 **기회**(幾回)까지 봅니다.

최근 전방위적인 **금융권 보안 위기** 또한
어떤 사업자는 당장 눈앞의 **비용 리스크**로 보겠지만,
어떤 사업자는 **미래**를 위한 **투자**로 인식하여
이용자의 **신뢰**를 얻고 **앞서나갈 기회**로 삼을 것입니다.

오늘 이 회의가 업계의 **진솔한 생각**을 듣고
보안에 대한 인식을 **근본적**으로 **전환**하며
나아갈 방향을 **모색**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